임실 소상공인 '똘똘' 뭉쳤다

연합회 발대식 본격 출범…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

임실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똘똘 뭉쳤다.

임실군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이기주)는 임실 문화원에서 심 민 군수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취임식 및 발대식을 가졌다고 28일 전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명실상부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장 의견을 정책화하여 소상공인 정책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기주(정마트 대표)씨가 임실군 소상공인 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임원들의 위촉식도 함께 가졌다.

이기주 회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임실군 소상공인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주춧돌 역할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생생한 목소리가 국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새로운 도약에 나서는 임실군 연합회가 단결과 화합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허브역할 다해 달라"며 "임실군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 및 권익보호 ▲애로사항 발굴 및 정책 건의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창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구매 및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임실군 소상공인 연합회는 임실 문화원에서 심 민 군수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취임식 및 발대식을 가졌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추진이 군정의 큰 틀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상향, 카드 수수료 지원, 군의 각종 지원 사업을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듯이 친절과 좋은상품, 가족 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여 임실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군은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임실사랑 상품권을 연간 20억여원 판매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내 경제 7단체(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중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법정 3단체 중 하나로써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2014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유아체육 · 종이접기 등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돌봄 제공

남원시가 시민들의 양육부담 완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8일 노암동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한에서 지원한 5천만원과 국도시비 등 총 1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한신아파트 경내의 기존 경로당 82.46㎡(25평)의 공간을 재단장해, 돌봄 활동실 및 학습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영유아 돌봄 및 초등학생(저학년) 대상으로 유아체육, 종이접기, 보드게임 등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9월부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품앗이 모임은 한 모임당 월 3만원이 지원되고 주 1회 이상 모임을 갖는 조건이며, 연중 회원을 모집하고, 이 사업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63) 930-1234 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 남원시 노송로 1229 http://namwon.familynet.or.kr) 로 하면 된다.

한편 개소식에서 이환주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가 지역 내 부모와 자녀에게 안전한 놀이공간과 양육에 대한 정보공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육아부담을 덜어주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여성친화도시 순창, "우리 함께 만들어요"

협의체 및 군민참여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가져

순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체와 군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협의체와 군민참여단 35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고, 여성가족부 컨설턴트인 오미란 박사의 진행아래 여성친화도시의 이해라는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가졌다.

지난 7월 순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군민을 중심으로 군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20명을 선정해 구성했다.

이들은 2년의 임기동안 여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피고, 정책제안이나 군정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방향제시와 개선사항 제안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의가 열려 순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순창을 만들기 위해 협의체와 군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올해 초부터 여성친화도시 연구 컨설팅을 추진 완료했으며, 공무원 교육과 비전 선포식 등 순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높이는 등 단계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보건소, 비만 교실 참여자 모집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지역주민의 비만관리를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비만(대사증후군)관리교실 운영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죽상경화증 등의 질환이 말하고, 또한 비만은 각종 암과 관절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적절한 체중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다.

한의약 비만교실은 9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3회 일정으로 2개월 동안체계적인 비만관리를 위해 사상체질 진단과 함께 한의사, 운동지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운동지도, 한방처치(침, 투약 등), 트렘플린운동 및 폼롤러를 이용한 근력운동, 기공체조운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보건소(620-7977, 7971)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9월 11일까지이고, 신청대상은 만 20세부터 55세 미만 지역주민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체계측 체성분(InBody)검사 25이상, 혈액검사, 혈압, 혈당검사 등과 한의사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최종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계면 어르신초청 큰잔치 성황리

순창 인계면 청년회(회장 박정규)는 28일 인계면 체육관에서 마을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계면 하모니카 동호회와 다듬이 난타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방송인 안문현씨를 초대하여 '내 삶의 행복 충전법'이라는 주제로 교양강좌를 진행했다.

이어 전북도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팀이 전통무용, 국악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펼쳤으며, 경품 추첨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청년회 주관으로 인계면민회,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하고, 각 사회단체 및 부녀회 등이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잔치를 치렀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아리

순창, 창업교육 우수자 창업 초기자금 지원

순창군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순창 농촌문제 해결형 맞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창업교육을 수료한 우수자에게 창업 초기자금을 지원하게 됐다.

'순창 농촌문제 해결형 맞춤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최우수 평가를 받아 올해도 진행된 사업으로, 귀농귀촌으로 급부상한 순창지역에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과 지역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농촌형 창업에 걸맞는 발효와 죽공 및 옻칠, 등공예, 홈패션 등 총 4개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훈련, 컨설팅과 초기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군은 교육 주관 단체인 사)10년후 순창(대표자 김태현)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고 7명의 교육생을 최종적으로 선발해, 지난 4월부터 교육을 진행해왔다.

최근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각 분야별 수료생 7명이 만든 시제품 품평회가 지난 27일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군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시제품을 만든 교육생들을 축하했다.

또한 이 날 시제품 평가에서 최종 우수자 2명을 선정해 창업지원금 전달식도 가졌다. 최우수상에는 죽공예 분야에 최경수씨, 우수상에는 발효 분야 이종동씨가 수상해 각각 창업지원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받는 영광을 안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남원시는 28일 시청강당에서 보안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많은 정보를 쉽게 획득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또한 무방비로 노출되어 악용될 여지도 많고, 일부 지자체에서 사이버공격과 업무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에 실시되었다.

교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업체 전문강사 2명을 초빙해, 각 부서장 및 보안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유형, 유·노출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및 최근 보안동향, 정보보안 준수사항 등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 등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일규 홍보전산과장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